

중년 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 태도

심정희[†] · 박수진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A Study of the Middle-Aged Women's Clothing Attitudes Depending on Their Somatotype

Jung-Hee Shim[†] · Soo-Jin Park

DID Institute, Inje University

(2006. 4. 10. 접수)

Abstract

Middle age is the time of the most important meaning in life and also the time of physical and mental change, which offers new social activities for self-development. Middle-aged women form the major consumer class in current clothing industry, but few have been performed on this so far. The researcher studied in many aspect on the clothes which middle-aged women need to wear during this period of change. Thus this study is executed to examine what benefits middle-aged women pursue in clothing attitudes and the relationship among clothing pursuit benefit and their somatotype compensation and image orientation. The research performed the theoretical study and practical study simultaneously. The subjects are 238 middle-aged women between 35 and 49 years old in September, 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ttitude of women's clothing patterns in relation with image consist of two factor structures. One is the body image and the other is the appearance image.
2.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attitude for choosing clothes of each body group by Rohrer index, the women with gross body group take a top priority for the lower-body compensation, while the women with slim body group take a top priority for volume compensation.
3.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cognitive somatotype group's attitude for choosing clothes, gross body group takes a top priority for lower-body compensation and upper-body compensation.
4.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somatotype and cognitive somatotype by Rohrer index, middle-aged women think of themselves as being fatter than present state. And choosing the clothes, the body misunderstanding group of women usually show that they consider more compensation than the normally body understanding group.
5. The evaluation on real somatotype, cognitive somatotype, ideal somatotype influences on the body cathexis.

Key words: Clothing attitudes, Somatotype compensation, Image orientation, Ideal somatotype, Body misunderstanding group; 의복 태도, 체형 보완, 이미지 추구, 이상 체형, 신체 왜곡 집단

[†]Corresponding author

E-mail: dejhshim@inje.ac.kr

I. 서 론

신체는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외모의 구성요소이므로, 인간은 모든 행위에 앞서 자아를 지각할 때 신체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때 신체 이미지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주어진 시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림을 의미한다. 인간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복은 여기에서 인간의 신체를 세 상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복은 개인의 가장 가까운 환경을 표현하는 신체적 자아의 확장으로 개인의 자아 개념, 태도, 가치관, 성격 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복은 물리적으로 신체에 접촉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에 상당히 접근하게 되고(Sontag & Schlater, 1982), 단순히 생활 필수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점차 그 역할을 이행해 가고 있다.

의복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보상해 주며,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의복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복은 자아의 확장과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Road, 1950), 육체적인 결점을 보완해주고 심리적 만족을 준다. 특히 중년기 여성들의 적절한 의복착용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self-worth)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자존심, 자신감과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는 패션요법(fashion-therapy)의 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강혜원, 1984).

의복은 다른 제품에 비해 사회적, 심리적 영향이 크고 자아 관여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념은 의복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념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왜곡되기 쉬우며, 실제로 자신의 정확한 신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다. 오늘날은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날씬한 체형에 대한 선호는 사회적·문화적 압박으로 작용해 여성들은 종종 특정 신체 이미지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문화적으로 정의되어지는 시대적 이상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의복 태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신체와 외모가 급격히 변화하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 개념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그에 따른 의복 태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이로써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족한 느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 및 신체 이미지

개인의 외모에 대한 개념은 신체상(body image)과 착용된 의복의 특성에 의해 동시에 작용을 받기 때문에 외모는 신체와 의복에 의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외모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 표정, 자세가 중요하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와 의복이다. 의복은 자아의 확장과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신체의 결점을 보완해주며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거리를 좁혀 심리적 만족을 준다.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신체는 매우 중요하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모에 대한 신체 이미지는 생물학적 성장, 외상, 노화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이나 기쁨에 의해서도 변하며,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도 변한다(Cash & Pruzinsky, 1990).

인간의 자아에는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가 있으며, 신체적 자아의 지각을 신체 이미지라 한다. 따라서 신체 이미지(Body image)란 우리의 신체적 자아 즉, 우리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서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신체 이미지는 개인이 어떠한 시기에 갖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신적 표현이거나 인식으로 마음의 눈을 통해 보여 지는 신체에 대한 조망이며, 마음속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그림이다(Schider, 1950). 신체 이미지는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

성되고, 환경으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되며 성별, 연령, 문화적 맥락(context)과 관련된다. 또 신체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것이므로 왜곡되기 쉽다.

따라서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관해서 갖는 감정이나 태도의 총체를 나타내는 집합 개념이고(Fisher, 1986),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갖는 정신적인 상이라 할 수 있다.

신체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 신체 만족도와 자아 만족도, 그리고 신체 만족감과 자아 존중감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신체 이미지의 문제는 객관적인 신체보다는 신체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Freedman, 1986).

이상에서 볼 때 신체 이미지는 전체적 자기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소비자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신체 이미지는 신체가 사이즈 면에서 변하거나 개인의 신체의 사이즈나 모양에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걱정할 때 왜곡되어 나타나며, 실제 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Kaiser, 1985; Kefgen & Touchie-Specht, 1998).

2. 중년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년기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 변화 등 내적 환경과 가족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 등 외적 환경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여성들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징은 신진대사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형이 변하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머리털이 가늘어지는 것 등이다. 지방질이 하체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 배와 엉덩이는 비대해지며 허리선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어깨는 둥글게 되어 처지게 된다(Ryan, 1966; Tate & Glisson, 1961).

또 젊었을 때에는 다른 체형의 실루엣으로 바뀌는데, 특히 45세를 기점으로 하여 체형 변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키를 비롯한 높이가 감소하고 둘째항목이 증가하면서 어깨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옆선 실루엣의 굴곡이 밋밋한 H형 체형으로 변화한다(최유경, 1997). 개인의 신체는 각 부위는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지 않고 성장 비율과 변화율이 달라

연령층과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변화를 나타내면서 각기 다른 체형을 이루게 되는데, 중년 이후가 되면 피하지방분포가 부위별로 달라 체형 변화가 현저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梶山藤子, 1976).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많은 특징 차이를 나타내는 부위는 몸통 실루엣, 즉 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부위, 다리, 팔, 가슴형태 등의 항목이다(岡部和代 et al., 1995).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의 경우 모두 굵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유미, 1994). 그 중 중년 여성들은 허리나 엉덩이가 굵은 것 등의 몸통의 비만에 대해 많은 불만감을 갖는 반면 여대생은 넓적다리나 다리가 굵은 것 등의 다리 부위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미, 1993). 두 경우 모두 높이나 길이보다 성형가능성이 높은 굵기나 둘레 치수에 대한 불만감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에 관계없이 하반신이 길어 보이길 원하였다(이영주, 1998).

중년 여성들의 이와 같은 체형 변화는 의복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원인이 되어 예전에 비해 더욱 의복을 의식하게 된다. 다양한 신체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은 의복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결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적합한 색상, 디자인, 치수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타인에게 단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의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이인자, 1985).

3. 중년 여성의 의복 태도

의복은 신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 주고 스스로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심리적 만족감과 안전감을 가진다. 즉 의복은 각 개인의 신체적 개념이나 신체 이상을 포함한 신체 자아를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년 여성의 의복에 대한 흥미, 태도, 습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젊었을 때와 거의 같으며(Kennedy, 1981),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려 노력하고 보다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싶어 한다.

또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긴장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많아져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 상징 수단으로 쉽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의복에 관심을 쏟게 되지만 유행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 만큼 높은 관심을 쏟지 않으며, 의복에 대한 만족에서는 의복의 fit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이영륜, 1981).

중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의복 디자인은 활동적이며 스포티한 옷, 여성적이며 드레시한 옷, 헐렁하며 볼륨 있는 옷의 순으로, 여성적이며 드레시한 옷을 선호하는 중년 여성은 사이즈를 중요시하는 반면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옷을 선호하는 중년 여성은 편안함을 중요시 한다(김시원, 1986).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옷의 형태보다는 색에 더욱 비중을 두어 30세 이후의 여성들은 형태보다는 색에 관심을 두고 밝은 색을 선호하며, 40세 이후의 여성들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옷을 원한다(한현숙, 1977).

중년 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복 구매요인은 옷감의 질이고, 디자인과 가격이 다음으로 중요하며(한명숙, 1980), 40대 여성이 외출복을 구입할 때 중요한 요인은 디자인, 색상, 가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장연화, 1981), 40~50대 주부들은 직물의 질이나 봉제상태 같은 품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장혜원, 1996).

이렇듯 연령이 높아지고 신체의 아름다움과 매력 이 낮아질 때 체형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따라서 의복이 갖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의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신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의복에 더 많은 욕구를 가지며,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하고 있는 의복 및 의복 생활에도 만족한다(홍병숙, 1985).

신체에 대한 비판 정도, 주관적 이미지, 신체 이미지 왜곡정도, 신체 불만족 부위도 의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젊을수록, 체형이 날씬할수록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의복 만족도도 높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의복 착용은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적절한 의복 착용은 이들의 생활에 활기를 넣어주어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회복시켜 젊은 물론 자존심, 자신감과 행복감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과

절차, 표집대상은 전보(심정희, 2006)와 같으며 본보에서는 의복 추구 태도에 관한 40항목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의복 추구 태도에 관한 측정문항은 연구자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법을 통하여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응답 내용은 첫째 신체의 결점 보완, 날씬해 보임, 키가 커 보임 등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내용들과 둘째 품위 있어 보임, 세련되게 보임, 타인에 비해 돋보임 등의 외모 이미지와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와 선행연구(김용주, 1999; 김지현, 홍금희, 2000; Shim & Bickle, 1994)를 토대로 최종 40문항을 선정하였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와 SPSS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1. 각 변인의 점수분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술평균을 구하였다.
2. 의복 태도의 하위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신체 및 외모 이미지에 따른 의복 태도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복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위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4. 의복 태도 구성 인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5. 체형과 의복 태도와 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사후검증을 위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이미지와 의복 태도

의복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에 관한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주성분 모형(Principal component)과 Varimax Rotation에 의한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표 2). 인자의 수는 스크리 플롯(Scree Plot)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이고 총분산이 크게 변동되지 않으며, 인자의 해석이

의미를 가지는 인자까지로 결정하였다. 이미지와 관련한 의복 추구 태도는 신체 이미지와 외모 이미지의 2차원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신체 이미지는 <표 1>과 같이 모두 4개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4개 인자의 총 설명력은 54.32%로 나타났다. 인자 1은 의복을 통해 배, 엉덩이,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의 하반신의 항목들을 보완하려 하므로 ‘하반신 보완’ 인자라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9.64이고 총 변량의 28.13%를 설명하고 있다. 인자 2는 의복을 통해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며 다리가 길어 보이기를 원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높이 보완’ 인자로 해석되며 고유치는 5.30, 변량기여율은 13.71%이다. 인자 3은 목, 어깨, 윗팔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상반신 보완’ 인자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52, 변량의 기

여율은 7.65%이다. 인자 4는 가슴과 전반적인 신체의 볼륨감을 추구하는 항목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어 ‘볼륨 보완’ 인자라 할 수 있으며 고유치는 1.17, 변량기여율은 4.83%이다.

외모 이미지는 <표 2>와 같이 4개의 인자가 추출되었고, 총 설명력은 60.87%로 나타났다.

인자 1은 의복을 통해 품위 있고, 신뢰감을 주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사교적이고 지적이며 유능하게 보이며, 단정함을 추구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사회성 지향’인자로 명명하였다. 인자 1의 고유치는 11.98이며 전체 변량의 30.21%를 설명해주고 있다. 인자 2는 매력적이고 유행 감각이 있으며, 타인에 비해 돋보이고 세련됨을 추구하는 항목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유행성 지향’과 관련된 인

<표 1> 신체 이미지의 인자분석 결과

인자명	항목	고유치	변량 기여율	누적 기여율
인자 1 (하반신 보완)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가 엉덩이가 작아 보이는가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가 엉덩이가 예뻐 보이는가 허벅지가 가늘어 보이는가 종아리가 가늘어 보이는가	9.64	28.13	28.13
인자 2 (높이 보완)	키가 커 보이는가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는가 다리가 길어 보이는가	5.30	13.71	41.84
인자 3 (상반신 보완)	목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가 어깨가 좁아 보이는가 윗팔이 가늘어 보이는가	2.52	7.65	49.49
인자 4 (볼륨 보완)	가슴이 커 보이는가 가슴이 예뻐 보이는가 전체적으로 신체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가	1.17	4.83	54.32

<표 2> 외모 이미지의 인자분석 결과

인자명	항목	고유치	변량 기여율	누적 기여율
인자 1 (사회성 지향)	품위 있어 보이는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가 사교적으로 보이는가 지적이고 유능해 보이는가 단정해 보이는가	11.98	30.21	30.21
인자 2 (유행성 지향)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유행 감각이 있어 보이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 돋보이는가 세련되게 보이는가	6.32	15.45	45.66
인자 3 (편안함 지향)	편안해 보이는가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2.85	10.13	55.79
인자 4 (개성 지향)	개성있게 보이는가 특별해 보이는가	1.27	5.08	60.87

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유치는 6.32, 변량의 기여율은 15.45%로 나타났다. 인자 3은 타인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편안함 지향’ 인자라 명명하였다. 인자 4은 개성 있어 보이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항목에 높은 부하량을 보여 ‘개성 지향’ 인자라 할 수 있다.

신체 이미지와 외모 이미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체 이미지는 외모 이미지와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들은 의복을 통해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외모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성 지향은 상반신 보완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볼륨 보완의 순으로 상관을 보였다. 또 유행성 지향은 하반신과 높이 보완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편안함 지향은 하반신 보완과 상반신 보완에서, 개성 지향은 볼륨 보완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는 중년 여성이 의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복 태도의 평균 점수이다.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들은 신체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하반신 보완을 가장 추구하며 상반신 보완, 높

이 보완, 볼륨 보완의 순으로 의복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성을 가장 지향하며 편안함, 유행성, 개성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배, 엉덩이, 허리 부위의 들레항목은 증가하여 굵고 짧은 체형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 사회는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임이나, 결혼식 등의 격식과 규범에 요구되는 상황에 많이 접하게 되므로 의복에서 사회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의복 태도를 고찰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하반신 보완과 높이 보완, 사회성 지향과 개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에서 하반신과 높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의복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비 지출에 따른 중년 여성 집단의 의복 태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신체 이미지에서는 하반신 보완과 높이 보완에서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사회성 지향, 유행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즉 월평균 의복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의복 태도에서 하반신 보완과 높이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표 3> 신체 이미지와 외모 이미지간의 상관관계

의도 \ 신체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	볼륨 보완
1. 사회성 지향	0.35***	0.27***	0.43***	0.24***
2. 유행성 지향	0.42***	0.41***	0.26***	0.34***
3. 편안함 지향	0.47***	0.36***	0.42***	0.23***
4. 개성 지향	0.19***	0.16**	0.15**	0.37***

p<.01, *p<.001

<표 4> 중년 여성이 추구하는 의복 태도

변 인		평 균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3.98
	높이 보완	3.63
	상반신 보완	3.70
	볼륨 보완	2.87
외모 이미지	사회성 지향	3.75
	유행성 지향	2.96
	편안함 지향	3.23
	개성 지향	2.45

<표 5> 연령 집단별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연 령			F
		35~39세 (79명)	40~44세 (64명)	45~49세 (95명)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3.89b	4.01b	4.52a	8.72***
	높이 보완	3.92ab	4.04b	4.23a	2.85*
외모 이미지	상반신 보완	3.46a	3.61a	3.50a	1.53
	볼륨 보완	3.02a	2.95a	3.08a	2.04
의복 지향	사회성 지향	3.76c	4.04b	4.35a	6.58***
	유행성 지향	3.02a	2.96a	2.92a	1.82
	편안함 지향	3.27a	3.33a	3.36a	0.86
	개성 지향	3.02a	2.76b	2.21c	9.35***

*p<.05, ***p<.001

<표 6> 월평균 의복비 지출에 따른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월평균 의복비지출				F
		10만원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만원이상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3.07b	3.13b	3.30ab	3.45a	3.72**
	높이 보완	4.32b	4.36b	4.48ab	4.53a	4.19**
	상반신 보완	2.97ab	3.09a	3.13a	2.92ab	1.73
	볼륨 보완	2.88ab	2.93a	3.02a	3.01a	2.01
외모 이미지	사회성 지향	3.52b	3.47b	3.58ab	3.85a	4.35**
	유행성 지향	2.78c	2.83b	2.95ab	3.16a	5.02**
	편안함 지향	3.27ab	3.23ab	3.18b	3.35a	1.87
	개성 지향	3.02a	2.92a	2.89a	2.96a	1.03

**p<.01

<표 7> 월평균 소득에 따른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월평균 소득				F
		200만원미만	2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이상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3.26a	3.20a	3.32a	3.35a	1.33
	높이 보완	4.47b	4.52b	4.69ab	4.71a	4.17**
	상반신 보완	3.03b	3.11b	3.28ab	3.36a	3.76**
	볼륨 보완	2.95a	2.84ab	2.82ab	3.02a	1.64
외모 이미지	사회성 지향	3.42c	3.78b	3.75b	3.92a	7.21***
	유행성 지향	3.01b	3.12b	3.38a	3.41a	4.03**
	편안함 지향	3.58b	3.73ab	3.77ab	3.83a	3.27**
	개성 지향	2.35a	2.42a	2.38a	2.37a	1.45

p<.01, *p<.001

수 있다. 또한 의복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행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중년 여성 집단의 의복 태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신체 이미지에서는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 그리고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사회성 지향, 유행성 지향, 편안함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즉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복을 선택할 때 높이와 상반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사회성과 유행성 및 편안함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에 따른 의복 태도

전보(심정희, 2001)의 결과에 따라 중년 여성들의 정면 형태는 모두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체형 집단별 의복 태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8).

신체 이미지는 볼륨 보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형은 신체 이미지에서 볼륨 보완의 점수가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반신 보완 점수는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체형은 의복을 고려할 때 볼륨 보완을 가장 추구하며, 상반신 보완은 별로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반신(목, 어깨, 윗팔) 부위의 신체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반해 A형은 하반신 보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므로, 의복을 선택할 때 하반신 보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A형은 다른 체형에 비해 하반신(배, 엉덩이,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위의 신체

<표 8> 정면 형태로 분류한 실제 체형 집단별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정면 형태로 분류한 체형집단				F
		X형	A형	H형	Y형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3.26b	3.48a	3.21b	3.32b	5.23**
	높이 보완	3.93a	3.74b	3.87ab	4.05a	2.85*
	상반신 보완	2.18b	2.23b	3.30b	3.52a	3.82**
	볼륨 보완	3.14a	3.07ab	2.95ab	3.03ab	2.04
외모 이미지	사회성 지향	3.62b	3.49c	3.74a	3.45c	8.25***
	유행성 지향	3.55a	3.25b	3.18b	2.92c	4.73**
	편안함 지향	3.23b	3.22b	3.20b	3.38a	3.69**
	개성 지향	3.06a	2.87b	2.82b	2.70b	1.01

* $p < .05$, ** $p < .01$, *** $p < .001$

에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복 선택시 이 부위의 보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한편 H형은 하반신 보완, 볼륨 보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의복 선택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Y형은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 부위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모 이미지는 개성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X형은 유행성 지향과 개성 지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편안함 지향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X형은 다른 체형에 비해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성과 개성을 지향하지만 편안함은 덜 추구함을 알 수 있다. A형은 다른 체형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중정도의 점수를 보여, 대체로 의복 선택시 특정 부위에 치우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형은 의복에서 사회성을 가장 지향하며 편안함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Y형은 편안함을 지향하며 의복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모든 요인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전보(심정희, 2006)의 결과에 따라 로러지수(Rohrer Index)에 의해 분류된 3체형 집단의 비만도에 따른 중년 여성들의 의복 태도를 살펴보았다(표 9). 신체 이미지는 하반신 보완과 상반신 보완, 볼륨 보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반신 보완과 상반신 보완은 뚱뚱한 체형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볼륨 보완은 마른 체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로러지수에 의한 실제 체형 집단별 의복 태도

의복 태도		로러지수에 분류한 체형집단			F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뚱뚱한 체형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2.95b	3.21ab	3.32a	8.81**
	높이 보완	4.07a	3.98ab	4.13a	2.36
외모 이미지	상반신 보완	3.05b	3.19ab	3.31a	5.02*
	볼륨 보완	3.15a	2.90b	2.75b	10.03**
외모 이미지	사회성 지향	3.86a	3.94a	4.05a	1.65
	유행성 지향	3.18a	3.17a	3.02ab	1.82
외모 이미지	편안함 지향	3.23b	3.31b	3.42a	11.94***
	개성 지향	2.92b	3.47a	3.52a	2.07

* $p < .05$, ** $p < .01$, *** $p < .001$

외모 이미지는 편안함 지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뚱뚱한 체형, 보통 체형, 마른 체형 집단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실제 체형과는 상관없이 자기 평가에 의한 인지 체형 집단의 의복 태도 결과는 <표 10>과 같다. 로러지수에 의해 분류된 실제 체형 3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전보의 결과에 따라 인지 체형 집단을 3집단으로 나누어 의복 태도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신체 이미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스스로 자신이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체형 집단이 하반신 보완과 높이 보완 그리고 상반신 보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볼륨감은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뚱뚱한 체형의 순으로 자신이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표 10> 자기 평가에 의한 인지 체형 집단별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인지 체형 집단			t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뚱뚱한 체형	
신체 이미지	하반신 보완	2.61b	3.15a	3.21a	13.56***
	높이 보완	3.56b	3.72a	3.85a	1.85**
	상반신 보완	3.10b	3.25ab	3.33a	3.02*
	볼륨 보완	3.37a	3.12b	2.56c	19.83***
외모 이미지	사회성 지향	3.87a	4.01a	3.92a	0.98
	유행성 지향	3.13a	3.06a	3.10a	0.23
	편안함 지향	3.31a	3.33a	3.36a	0.65
	개성 지향	2.65a	2.40b	2.38b	3.87*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 이미지는 개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자신이 말랐다고 생각하는 체형 집단이 의복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자신이 말랐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의복을 통하여 유행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의복을 통하여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의 차이에 따른 의복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그 결과 신체 이미지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왜곡집단과 비왜곡집단의 분류는 전보(심정

희, 2006)와 같다.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왜곡집단)은 자신의 체형을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집단(비왜곡집단)에 비해 볼륨감을 제외한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반면에 볼륨 보완은 신체를 왜곡하지 않는 집단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신체를 왜곡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값이 신체를 왜곡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뚱뚱한 집단,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이 일치하는 집단,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마른 집단의 3집단간 의복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신체 이미지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유행 지향과 개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뚱뚱한 집단과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이 일치하는 집단은 볼륨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마른 집단은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뚱뚱한 집단과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이 일하는 집단은 유행성과 개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 차이에 따른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차이		t
		왜곡집단	비왜곡집단	
신체 이미지	하반신보완	3.42	3.11	12.03**
	높이 보완	4.18	4.05	3.32*
	상반신보완	3.33	3.18	4.72*
	볼륨 보완	3.12	3.34	8.63**
외모 이미지	사회성지향	3.57	3.62	0.43
	유행성지향	3.16	3.25	0.85
	편안함지향	3.20	3.28	0.78
개성 지향	2.64	2.68	0.17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 차이에 따른 의복 태도

의복 태도		이상체형과 인지체형			F
		이상체형 > 인지체형	이상체형 = 인지체형	이상체형 < 인지체형	
신체 이미지	하반신보완	3.06b	3.14b	3.32a	17.36***
	높이 보완	3.73b	3.88b	4.01a	5.45*
	상반신보완	3.20b	3.39ab	3.42a	3.41*
	볼륨 보완	3.26a	3.12a	2.45b	15.37***
외모 이미지	사회성지향	3.47a	3.46a	3.52a	0.32
	유행성지향	3.75a	3.62b	3.55b	4.38*
	편안함지향	3.41a	3.32a	3.34a	0.73
	개성 지향	3.03a	2.96ab	2.40a	3.89*

* $p < .05$, ** $p < .01$, *** $p < .001$

3.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 태도

<표 13>은 신체 만족도에 따른 집단간 의복 태도를 살펴본 것이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별 신체 이미지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표 13>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 태도

집단 의복태도		신체만족도		t
		만족집단	불만족집단	
신체 이미지	하반신보완	3.02	3.30	13.37***
	높이 보완	3.75	3.93	7.34**
	상반신보완	3.23	3.37	4.56*
	볼륨 보완	3.17	2.98	6.03**
외모 이미지	사회성지향	3.75	3.61	0.84
	유행성지향	3.36	3.20	7.28**
	편안함지향	3.34	3.27	0.97
	개성 지향	2.94	2.76	8.91**

* $p < .05$, ** $p < .01$, *** $p < .001$

고, 외모 이미지에서는 유행성 지향과 개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 만족도가 낮은 집단(불만족 집단)은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에 대하여 신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에 불만족한 사람일수록 의복을 통하여 개성 있고 날씬해 보이며, 신체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더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볼륨 보완에 있어서는 신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유행성 지향과 개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은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성과 개성을 더욱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전체적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35~49세의 중년 여성 238명을 대상으로 하여 체형에 따른 의복 태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미지와 관련한 의복 추구 태도는 2차원으로 구성되었다.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 볼륨 보완의 4개 인자로 구성된 신체 이미지와 사회성 지향, 유행성 지향, 편안함 지향, 개성 지향의 4개 인자로 구성된 외모 이미지로 나타났다. 신체 이미지에서는 하반신 보완을 가장 중요시하며 외모 이미지에서는 사회성을 가장 추구하였다. 의복 태도는 연령, 월평균 의복비 지출,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에서 하반신과 높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의복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의복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의복 태도에서 하반신과 높이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사회성과 유행성, 개성을 추구하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이와 상반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사회성과 유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로러지수에 의한 체형 집단별 의복 태도를 살펴본 결과 하반신 보완과 볼륨 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뚱뚱한 체형이 하반신 보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볼륨 보완은 마른 체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지 체형 집단별 의복태도를 살펴본 결과 하반신 보완과 상반신 보완, 볼륨 보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뚱뚱한 체형 집단이 하반신 보완과 상반신 보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볼륨 추구는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뚱뚱한 체형의 순으로 자신을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로러지수에 의한 실제 체형 집단과 인지 체형 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체형 왜곡 집단은 자신의 체형을 정상적으로 인지하는 비왜곡 집단에 비해 의복 선택시 볼륨감을 제외한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뚱뚱한 집단,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이 일치하는 집단,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마른 집단의 3집단간 의복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 볼륨 보완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유행 지향과 개성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뚱뚱한 집단과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이 일치하는 집단은 볼륨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마른 집단은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뚱뚱한 집단과 이상 체형과 인지 체형이 일하는 집단은 유행성과 개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실제 체형, 인지 체형, 이상 체형에 대한 평가는 신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체형이 마를수록, 인지 체형이 마를수록, 이상 체형이 인지 체형보다 마른 경우일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인지 체형이 신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신체 만족도가 낮은 집단(불만족 집단)은 신체 이미지에 있어서 하반신 보완, 높이 보완, 상반신 보완에 대하여 신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에 불만족한 사람일수록 의복을 통하여 개성 있고 날씬해 보이며, 신체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더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볼륨 보완에 있어서는 신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이미지에 있어서는 사회성 지향과 날씬함 지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은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성과 개성을 더욱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전체적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84).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김시원. (1986). *우리나라 기성복 상품기획 현황과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중산층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주. (1999).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태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 홍금희. (2000). 남성집단의 의복추구태향에 따른 쇼핑 성향과 정보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43-54.
-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43(1), 163-180.
- 심정희. (2006). 중년 여성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07-1518.
- 이영륜. (1981). *중년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주. (1998).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30-49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1), 127-138.
- 이인자. (1985).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장연화. (1981). *의복의 구매의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혜원. (1996). *사회 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40-50대 주부의 외출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유경. (1997). *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유미. (1994). *중년기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명숙. (1980). *주부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논문집*, 8, 295-312.
- 한현숙. (1977). *의상디자인의 요소가 여성 심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병숙. (1985). *기혼 여성의 의복구매 의사 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岡部和代, 山名信子, 山本和枝. (1995). 成人女子シルエットのつきの評価と服装シルエットの關聯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6(3), 295-300.
- 梶山膝子. (1976). *被服構成學*. 東京: 光生堂.
- Cash, T. F. & Pruzinsky, T. (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Freedman, R. (1986). *Beauty bound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Fisher, S. (1986).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iser,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Kefgen, M. & Touchie-Specht, P. (1998).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Kennedy, F. (1981). *The fashionable mind*. New York: Alfred A. Knopf Publisher.
- Road, K. H. (1950). Clothing help build personal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42(1), 348-350.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Inc.
- Schider, P. (1950). *The image and appearance of human body*.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him, S. & Bickle, M. C. (1994). Benefit segments of the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ping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2(2), 1-12.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 Tate, M. T. & Glisson, O. (1961).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